

심판의 날



심판의 날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며 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즐거워하라 숲의 모든 나무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가 오시나니 그가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진리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시편 96:11-13

모든 인류를 위한 미래의 심판의 날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위로가 되며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우리 본문에서 주님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진리로 백성을 심판하시려” 오심을 모든 이가 기뻐하라는 초청과 일치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할 때 이 날의 도래를 확증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으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확증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31

주님께서 구원 계획 안에서 마련하신 미래의 심판의 날은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내리시는 시간 이상입니다. 이는 또한 시험의 기간이 될 것이며,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완전한

지식 을 바탕으로 주님께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의로움과 불의 사이에서 선택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심판의 날이 평범한 24시간의 하루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듯 천 년이라는 한 시대 전체를 의미함을 뜻한다. 사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통치하실 동일한 천 년 기간이다. 그분은 왕이시면서 동시에 심판관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 동안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은 천 년 동안 그분과 함께 공동 통치자가 될 것이며, 세상을 심판하는 사역에도 그분과 함께 참여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20:4; 고린도전서 6:2

모든 개인의 영원한 운명이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에 의해 돌이킬 수 없이 결정된다는 잘못된 견해는 성경의 아름답고 조화로운 가르침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이 복음 시대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신성한 봉사에 전념한 자들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대로 예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지금 심판받지 않고 나중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도

심판의 날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말한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12:47,48).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게 본문의 약속과 조화를 이루는지! 미래의 그 행복한 심판의 날에 사람들은 "진리"로 심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진리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심판 날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은,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현재 심판에 들어간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는 참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이 맥락에서 사용된 '심판'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형벌을 선고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며, 형벌에 이르는 재판의 개념도 포함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지금도 시험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너희 믿음의 시험"에 대해 말하며, 그것이 "썩어질 금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7). 그는 또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려 하는 불같은 시련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줄로 여기지 말라." (베드로전서 4:12).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시련은 혹독합니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상도 큼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10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불같은 시험" 또는 심판에 대해 언급한 후 더 설명합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때가 왔으니,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끝은 어떠하리요? 의인이라도 간신히 구원을 받는데, 불경건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나타날 수 있겠느냐?" (베드로전서 4:17,18). 이 본문은 현 시대가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심판의 때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는 주님의 심판 사역의 시작에 불과하다. 베드로는 "불경건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고 묻는다. 이 본문에서 사도는 자신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며, 일부는 불신자들에게 미래의 심판이 없으며 그들이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 나타날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대답하셨다. 위에서 인용한 대로, 듣되 믿지 않는 자들은 현재는 지나가게 하시고,

심판의 날

"마지막 날"에 그의 "말씀"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2:47,48). 이 놀라운 확신 속에서 주님은 불신자들의 심판이 이 생애에서 일어나지 않으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결정이 지금 내려지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미뤄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십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은 개인의 현생 마지막 날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마르다 역시 그녀의 형제 나사로에 대해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나는 아노라"고 말할 때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11:24). 여기서 "마지막 날"은 부활의 시점을 가리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즉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신적 계획의 마지막 위대한 날 또는 기간입니다.

이미 인용된 본문들에서 분명히 드러나듯, 현재 생명을 걸고 시험받는 자들은 오직 주님께 전념한 제자들뿐이다. 이들에게는 두 번째 시험 기간이 없으며, 이 사실을 확증하는 성경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간과한다면, 현세 외에는 누구에게도 시험 기간이 없다고 쉽게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죄 상태에 있는 자는 생애를 걸고 시험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자신을 전념하지 않은 모든 이가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있다. 반면 믿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근거로 아담을 통해 인간에게 임한 정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선 그들의 새로운 지위에는 "생명의 의"가 있으며, 그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롬 5:18; 8:1).

이것이 장래 심판의 날과 관련하여 갖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드러납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으니 심판[그리스어 '크리시스(krisis)']는 심판을 의미함]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24). 이는 믿는 자들이 지금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장래에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들의 심판이나 시험의 날은 지금입니다.

이는 세상의 미래 심판 날과 그 결과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대한 진리이다. 예를 들어, 이는 죄인들이 성도들과 분리되는 때이며 그 분리가 각자가 죽을 때 이미 내린 결정에 근거한다는 관점을 배제한다. 예수님은 그의 참된 추종자들인

"성도들"이 그 미래 심판에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셨기 때문이다.

부활 안에서

이미 인용한 바와 같이, 예수께서는 믿는 자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는 믿음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들은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5:29에서 선을 행한 자들이 "나와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들의 심판 시기는 지났으며, 부활에서 그들은 "선한 일을 인내로 계속함으로" 부지런히 추구한 "영광과 존귀와 불멸"로 상을 받습니다. 로마서 2:7

악을 행한 자들

예수님은 부활이 "선한 일을 행한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시며,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5:28). 그러나 다음 절이 선언하듯, 선한 일을 행한 자들만이 "생명에 대한 부활"로 나올 것이며,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에 대한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리스어 단어는 "크리시스(krisis)"이며, 일반적인 번역본은 이를 "심판"으로 잘못 번역합니다.

그리스어 "크리시스(krisis)"는 결정적인 시험의 시간이나 경험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결정적인 시험은 현세에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때 부활에서 생명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그 외 모든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간다. 즉 그들의 심판이나 재판의 날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들에게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큰 위기는 죽음의 잠에서 깨어난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세계를 위한 미래의 천년 시험 기간은 어떤 의미에서 인류에 대한 두 번째 심판이 될 것이며, 첫 번째 심판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은 우리 첫 조상의 심판의 날이었고, 그 결과는 모든 인류가 공유하였다. 그 시험, 즉 위기의 순간에 아담은 신성한 법을 어기고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 유전으로 인해 그의 자손들도 그 벌을 함께 받았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되었으니" (로마서 5:18).

심판의 날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신의 뜻과 법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창세기 2:17). 이는 단순한 법이었습니다.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담의 정죄는 그에게 계시된 진리와 반대되는 길을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그의 불순종은 죽음뿐 아니라 이해력의 상실까지 초래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관한 어둠은 그의 "타락"의 피할 수 없는 결과였으며, 아담의 후손들도 그에게서 이 "어둠"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이사야는 세상의 이 일반적인 상태를 이렇게 묘사한다. "어둠이 땅을 덮고, 짙은 어둠이 백성을 덮으리라." 이사야 60:2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 아담과 그의 후손을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백성의 "짙은 어둠"을 묘사한 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너희 위에 떠오르시리니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요 이방인들이 네 빛을 보려고 오며 왕들이 네 빛나는 광채를 보려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2,3절

이에 따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요한복음 8:12). 또한 그분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시라고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9). 그러나 아직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추는 복음의 빛을 받아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인류 대다수에게 있어서는 요한이 말한 대로 여전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도다.”(요한복음 1:5)라는 말씀이 사실입니다.

분명히 빛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12:47).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눈이 보는 것이 복이요, 너희 귀가 듣는 것이 복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13:16). (마태복음 13:16).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실 때, 그 이유로서 자신과 자신의 사역에 적용하신 예언을 인용하셨습니다: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사 눈으로 보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나로 그들을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2:40

심판의 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7).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누구든지 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조건이다. 그러나 지금도 사람들 대다수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므로, 장차 올 깨달음과 심판의 날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죽은 자들이 듣게 하려 하심

우리는 이미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지금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 이 지금 믿음으로, 그리고 실제로 부활 때에 생명을 받는다는 것과, 이들이 장차 세상과 함께 심판에 들어가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요한복음 5:24). 그러나 28절과 29절은 이 소망을 크게 확장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음성을 듣고 나올 것"이라고 확인하십니다. 죽기 전에 믿고 신실함을 입증한 자들은 그때 즉시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외 모든 이에게는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믿는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진리를 듣고 믿을 기회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새로운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받는 기회가 현재에만 한정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신성한 자비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만 미치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이후로는 하나님이 개인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없다는 잘못된 견해가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이러한 제한적 견해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믿지 않는 온 세상은 죄 가운데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강림 전 4천 년 동안, 하나님은 정죄받은 세상()이 깨우침과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죽음 속에서 잠들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세주이자 구원자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 피조물을 사랑하셨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으려면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죽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분명히 그분을 믿을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믿을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채 죽은 이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늘 아래, 사람 가운데 주어진 유일한 이름, 곧 그들이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사도행전 4:12). 게다가 예수님 자신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가르침을 듣는 많은 이들도 그 안에 담긴 핵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들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으며 나중에 그의 "말씀"으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진리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 복된 때에 주님께서 "그의 진리로"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는 본문과 조화를 이룹니다(시편 96:13). 이는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이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에 관한 진리로 깨우침을 받을 것이며, 그 깨우침을 바탕으로 순종하고 살 기회를 부여받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이토록 분명히 가르쳐진 이 영광스러운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의 많은 본문과 약속들을 명확히 이해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9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참되지 않았습니니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참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장차 깨달음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복된 확신 때문에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날, 즉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기간에 대한 놀라운 예언에서 "땅이 바다로 덮임 같이 여호와와 의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사야 11:9

스바냐는 사도 바울이 "이 악한 세상"이라 묘사한 사회 질서의 붕괴 속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계시적 예언을 통해, 이 고통의 시기가 지나면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순수한 언어[메시지]를 백성에게 돌리실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1:4; 스바냐 3:8,9

예언자 예레미야는 장차 주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백성의 마음에 기록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때에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보편화되어 "그들 중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모두가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31-34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이시니 곧 사람 그리스도 예수이시라.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한 랜섬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으니, 때가 되면 증거되리라." 디모데전서 2:3-6

첫눈에 보기에 여기에 제시된 순서는 다른 성경 구절들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구절들은 먼저 진리를 알아야 하며, 그 지식 위에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사도가 먼저 "구원받음"을 말하고, 그 후에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바울은 복음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얻는 영원한 구원을 가리켜 "구원받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오직 한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함을 알지 못한 채 죽은 모든 사람이 영적 죽음(death)에서 깨어나 진리를 알게 될 기회를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것이라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 "구원받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모든 사람이 배우고 받아들여야 할 위대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입니다(히브리서 2:9). 바울은 이를 '모든 사람을 위한 랜섬'이라 말하며, 바로 이 위대한 진리가 '때를 따라 증거되리라'고 합니다. "때가 차면"이라는 표현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는 인류의 구속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질서 정연하고 미리 정해진 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그 사랑의 설계의 모든 요소마다 정해진 때가 있음을 나타낸다. 현재의 시대와 현재의 삶은 어떤 이들이 진리를 깨닫고 믿으며 순종할 정해진 때이다. 천년왕국 기간 동안, 그리고 깨닫지 못한 세상이 죽음에서 깨어날 때, 그들에게 복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증거될 정해진 때가 될 것이다. 그때가 바로 그들이 순종하고 살 정해진 때이다.

“책들이 펼쳐지니”

요한계시록 20:12-15은 세상의 미래 심판의 날과 관련된 성경의 매우 흥미로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 상징적인 예언에서 책이 펼쳐지는 개념으로 미래에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심판의 날에 대한 이 놀라운 묘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책들이 펼쳐졌으며, 또 다른 책이 펼쳐졌으니, 이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 주었고, 사망과 음부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 주었으며, 그들이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졌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누구나 불못에 던져졌더라.”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기간 동안,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원래의 정죄가 더 이상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각자가 믿고 순종하며 살 기회를 얻게 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기회는 신적

은혜의 추가적인 계시를 요구한다. “책들”이 열려야 한다.

이는 그가 “그의 진리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다(시편 96:13). “책들”에는 진리가 담겨 있으며, 반드시 열려야 한다. 책들이 닫혀 있는 한 진리는 감춰져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이 구절에서 언급된 책들이 죽은 모든 이들의 과거 생애 기록을 담고 있으며, 심판의 날에 이 책들이 열려 누가 합당하고 누가 합당하지 않은지 밝혀진다는 일부 견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심판받는 자들의 “행위”를 “책들”과 별개로 언급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심판은 책들에 기록된 것들, 즉 “그들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심판이 그들의 행위가 책들에 담긴 진리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에 근거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어떤 죄인의 생명의 합당성이나 부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그 행적 기록을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듯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로마서 3:10)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자취만 따라가는 자들조차 자신의 불완전한 행위로 심판받으면 생명의 합당성을 갖추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도 자신의 의로 생명에 합당하지 않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신성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의 피로 마련하신 놀라운 구원을 통해 정죄에서 벗어날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초가 될 지식이 없이는 진정한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식이 제공되며, 천년 심판의 날에 "책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해석하시며, 이사야 29:11-18에서 다시금 이 상징적인 "책들"과 그 책들이 열림이 의미하는 바를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는 "봉인된 책"이 학식 있는 자에게 주어지고, 그다음에 무식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그 내용의 의미를 "읽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침내 그 책이 열리니 - "그 날에 귀머거리가 그 책의 말씀을 듣고, 눈먼 자의 눈이 어둠과 흑암 속에서 보리라." "그 날"이라 불리는 시기는 문맥상 그리스도의 왕국 시대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날에 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온유한

자들도 주 안에서 기쁨을 더할 것이요,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기뻐할 것이라." 19절

“그들의 행위에 따라”

요한계시록 20:12-15의 심판 날 예언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죽은 자들은 주님께서서 악한 자로 아신 자들이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에 나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실 때 묘사하신 바로 그 사람들이다. (요한복음 5:29). 그러므로 여기서 언급된 행위는 그들이 열린 책들의 메시지를 배우고 듣고 응답한 후, 천국에서 행한 그들의 행위를 의미한다.

예언은 "또 다른 책"이 열리기도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생명책"이라 불린다. 하나님 앞에 서서 책에 기록된 것들에 대한 순종 여부를 심판받는 죽은 자들은, 이전에 그들의 이름이 죽음의 책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처럼, 모두 아담의 "책"에 속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생각을 약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라고 말하지만,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고린도전서 15:22

심판의 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책이 인류에게 열릴 것이며, 저주받은 인종 중 각 개인— —이 죽음에서 깨어나 깨달음을 얻어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그의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될 것이다. 이 생명책의 열림은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따라" 진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함이다. 그때 사람들이 그 진리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시편 96:13

불못

요한계시록 20:13은 그때에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음부, 즉 그리스어 원문에 나오는 하데스는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옥에서 죽은 자들이 돌아온 후, 죽음과 지옥은 모두 "불못"에 던져질 것이며, 이는 "둘째 사망"으로 묘사됩니다(14절). 불못에서 멸망하는 모든 것이 두 번째로 죽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형벌이 두 번째로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불못, 즉 둘째 사망 안에서 죽음 그 자체도 죽게 될 것이다. 지상의 최종 정화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의 멸망이 포함된다. 이들은 불못, 곧 둘째 사망에 던져져 고통받기 위함이 아니라 멸망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진리로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은 그들에게 은혜의 때가 될 것이다. "주의 심판이 땅에 임할 때에 세상의 거주민들이 의를 배우리라." (이사야 26:9). 그러나 그때에도 고의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진리를 순종하기를 거부할 것이다. 이에 대해 다음 구절은 이렇게 선언한다. "악인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그들은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도 악을 행하며 주의 위엄을 돌보지 아니하느니라." 이사야 26:10

"의의 땅"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동안 땅에 존재할 상황을 묘사합니다. 베드로도 같은 시기를 언급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가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베드로후서 3:13). 베드로는 이 새로운 시대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 부릅니다. (베드로후서 3:7). 이는 그들에게 멸망을 의미할 것이니,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하였음이라. 사도행전 3:23

그러나 베드로가 보여 주듯이, 진리가 제시되었을 때 그것을 듣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만이 불경건한 자로 드러나 멸망할 것입니다. 진리의 계몽적 영향 아래에서 그들의 고의적인 성품이 드러날 것입니다.

양과 염소

다가올 심판의 날에 관한 또 다른 교훈은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마태복음 25:31-46). 이 비유가 적용되는 시기는 첫 구절에서 밝혀집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으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예수님은 천 년 통치 기간 동안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리스어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천사들"은 "사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 시대에 믿고 죽기까지 충성하여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며 동역하는 왕과 심판자로 세워질 그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모든 민족이 이 "영광의 보좌" 앞에 모일 것이며, 그들은 양과 염소처럼 구분될 것이다. 이는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아니다. 교회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있기 때문이다. 분별은 오히려 이전에

깨우침을 받지 못하고 불신자로 죽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책들"이 펼쳐질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죽은 자들, 작은 자나 큰 자나"입니다. 그 때 어떤 이들은 믿고 순종할 것이나,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므로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12

모든 민족이 그 미래 심판 날 장면에 참여할 것이다. 예수님은 다른 자리에서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더 참기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0:15). 이는 먼 과거의 그 악한 도시들 사람들이 죽음에서 깨어나 회개하고 믿으며 살 기회를 얻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예수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 악한 도시들에게 더 참을 수 있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그토록 많은 빛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 참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이가 깨어나고 깨달음을 얻을 것이며, 빛과 진리에 순종한다면 영원히 살 자격이 있다고 심판받을 것이다.

비유에서 "양"의 계급은 도움과 협력의 정신으로 인해 상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심판의 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34). 진리의 책들, 즉 그때 사람들이 심판받을 예수님의 말씀이 펼쳐질 때, 생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모든 신성한 조건의 기초가 바로 신성한 사랑에 대한 이해와 실천, 즉 자기보다 이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는 이 위대한 이타주의 원칙임이 밝혀질 것입니다.

이 특성은 양의 계급에서 발견될 것이다. 이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환영의 말씀을 듣게 된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마태복음 25:34). 이는 원래 우리 첫 조상에게 주어졌으나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에덴에서 쫓겨나 죽음을 맞이하며 잃어버린 지상의 왕국이다. 천년 심판의 날이 끝날 때, 이 왕국은 그때 자격을 갖춘 모든 이에게 회복될 것이다. 베드로가 "회복"이라 묘사한 것이 바로 이 회복이다. 사도행전 3:20-23

이 비유에서 "염소"는 요한계시록 20:15에 나오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다. 그들은 이사야 26:10의 악한 자들과 사도행전 3:23의 그 시대 위대한 스승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 자들로, "백성 가운데서 멸망할 자들"이다.

예수님에 따르면 염소 부류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양들은 영생을 받습니다(마태복음 25:46). 본문의 "벌"()이라는 단어는 "잘라내다"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즉, "염소"들은 생명에서 잘려나갈 것—파멸당할 것이다. 41절에서는 이것이 불로 상징되는데, 불은 인간이 아는 가장 파괴적인 수단 중 하나로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마귀와 그와 함께한 불경한 천사들조차도 계시자가 "둘째 사망"이라 선언한 상징적인 불못 속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한편, 아담의 모든 자손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제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 충분한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믿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생명을 잃거나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토록 광대하다는 이 확대된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섬기고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게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신성한 구원 계획에 협력할 놀라운 기회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선물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잃어버린 세상을 화해시키는 사역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동역하는 높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인류에게 아직 예비된 놀라운 축복들, 즉 천년 심판의 날에 백성들에게 임할 축복들을 생각할 때, 시편 기자가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라 하여 온 피조물이 주님을 찬양하라고 외친 것은 당연하다. "그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리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시편 96:13